

특별회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멕시코 야요치나파 43명 실종사건의 진실과 그 의미“

노용석
[Kore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1. 라틴아메리카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라틴아메리카의 국가폭력 문제는 광범위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기간 동안 발생했던 라틴아메리카의 민간인학살과 실종, 인권침해 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킨 곳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진실화해위원회 경험은 타 국가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여기서 행해진 각종 제도와 정책들은 많은 학문 분야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폭력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범주로부터 시작해 범죄조직, 마약, 성폭력 등 개인의 일상에 국가주의가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서 출발해 다양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관한 일반적 인식은 냉전기간 자행되었던 국가폭력의 불완전한 청산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내부의 갈등을 통해 더욱 심각해지는 사회불안 요소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중미의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의 경우는 냉전기간 진행되었던 내전이 종식된 후, 그 기간 동안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해자의 입장에 섰던 군부나 경찰 조직을 혁신하지 못한 결과 아직까지 국민들은 과거사청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 국가폭력의 주요 범주들>

- 권위주의(독재) 정권 하 국가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 혹은 피해 사례(보편적 인권, 여성, 아동 등)
- 국가공권력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민간인학살
- 내전 시기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국가폭력
- 비정상적 혹은 불완전한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 불완전한 사법체계 혹은 국가안정망의 붕괴로 인해 개인의 생명과 인권 등이 피해를 받게 될 경우.
- 군부 혹은 경찰 조직의 개혁 미비로 인한 사회적 부정의와 불만 증폭

2. 멕시코의 국가폭력과 과거사청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멕시코는 인구나 자원력, 역사,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라틴아메리카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식민지배가 현재 멕시코시티의 '누에바에스파냐 부왕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18세기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 20세기 초반 멕시코 혁명을 통한 근대국민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멕시코가 어떠한 선진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초반 멕시코는 전 세계 국가 중 상당히 낮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고, 군부와 정부조직, 기업의 부정부패 역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조직을 통한 사회불안과 여성가정 폭력, 인신매매, 매춘 등이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공권력의 대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1917년 멕시코 혁명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멕시코헌법을 제정했던 국가였지만,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발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가 된 셈이다. 이러한 현상과 연관한 멕시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거

의 유일하게 형식적인 과거사청산조차도 시작된 바가 없었던 국가가 멕시코라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가 가진 '다양한 불명예'들은 결국 누적되어오던 국가폭력과 부조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불안은 멕시코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정치적 트라우마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의 위와 같은 정치적 특수성이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43명 사범대학생 실종사건이 발생했던 게레로 지역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3. 2014년 아요치나파 사건의 과정

멕시코의 국가폭력과 이와 관련한 제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표에서는 2014년 아요치나파 사범대학교 대학생 43명 실종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2014년 9월 26일, 멕시코 게레로(Guerrero)주 아요치나파(Ayotzinapa)에 있는 라울 이시드로 부르고스 농촌사범학교 학생들이 이괄라(Iguala) 시에서 교사 임용 차별에 대한 시위를 벌인 후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4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은 멕시코의 의문사 혹은 실종사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926년 개교한 아요치나파 교육대학은 예전부터 급진적 학생운동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좌파 무장 게릴라로 활약했던 루시오 카바냐스(Lucio Cabañas)도 이 학교 출신이다. 멕시코의 농촌사범학교(las escuelas normales) 제도는 농촌이나 원주민 마을에서 근무할 초급 교사들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민중운동 혹은 혁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014년 9월 26일, 약 100여 명의 아요치나파 사범학교 학생들은 인근 이괄라 시로 이동해 집회를 하는 동시에 멕시코시티로 가기 위한 '버스 보급투쟁'을 실시하였다. '버스 보급투쟁'이란 사범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전통적인 관행으로서, 버스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나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게레로 주에서 계속 행해졌던 행동이며, 당시에 특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날 게레로 주 경찰과 연방군대는 아요치나파 학생들이 탈취한 버스 5대를 맹렬히 추격했으며, 추격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학생 2명과 시민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게레로 주 경찰과 연방군대는 버스 2대에 탑승하고 있던 학생들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현재까지도 생사를 모른 채 실종중인 상태이다.

사건 발발이후 초기에는 이 사건이 당시 이괄라의 시장이었던 호세 루이스 아바르카 벨라스케스(José Luis Abarca Velázquez)와 그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피네다(María de los Ángeles Pineda)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시장 부부가 자신들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을 진압했으며, 게레로 주 경찰들은 학생 43명을 마약조직단인 게레로스 우니도스(Guerreros Unidos)에게 넘겨 살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과정들이 진행되었는데, 2014년 10월 5일, 멕시코 연방검찰(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갱단들이 학생들을 이팔라 인근의 코쿨라(Cocula) 쓰레기 하치장으로 끌고 가 살해하여 불에 태웠으며, 그 재를 인근 산후안 강에 뿌렸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견된 28구의 유해는 실종 학생들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로도 43명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은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뚜렷한 전기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새롭게 멕시코 대통령에 취임한 AMRO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2020년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7월 1일, 게레로스 우니도스의 조직원이었던 앙헬 카사루비아스를 검거하여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43명의 대학생이 공권력에 의해 실종되어 6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사회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다른 국가의 경우를 아요치나파에 대비해본다면 멕시코는 현재 너무 '조용한' 편이며,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왜 멕시코는 타 국가의 사례처럼 치명적인 국가폭력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원인에는 과연 어떠한 특징과 이유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20세기 초반부터 약 70여 년 간 계속적으로 진행된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PRI)의 권력 유지 시스템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좌파 세력의 부재 등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 정치에서 '적절한 야권'의 부재는 결국 제대로 된 과거사청산 및 국가폭력의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아요치나파 43명 실종사건은 멕시코 사회 여러 부분의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 당시 43명 실종자를 비롯한 사범대학교 학생들은 버스를 탈취해 멕시코시티로 가고자 하였으며, 그 이유는 10월 2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멕시코 68혁명 기념식'과 '틀라텔롤코 학살 추념식'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멕시코에서 43명 실종사건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역시 멕시코 68혁명 및 틀라텔롤코 학살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4. 멕시코 68혁명과 이후 좌파운동의 몰락

1950년부터 1970년까지 멕시코의 전체적인 경제상황은 수입대체화산업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연평균 6.3%의 경제성장률과 3.3%의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부의 지나친 집중과 허약한 분배 체계는 발전 동력을 하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사회내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학생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 좌파 그룹에서는 무장투쟁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시위는 1968년 10월에 있었던 틀라텔롤코 사건이었다. 1968년 10월 2일 틀라텔롤코 광장에서 시위대 1만 5천명 이상이 '멕시코 올림픽 개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무장 헬기 등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 공격하였다. 당시 이 공격은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Gustavo Díaz ordaz) 직할 '올림픽 대대' 군인과 정규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헬기 기총소사로 2백 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틀라텔롤코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의 저항운동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사실 1968년 위와 같은 시위는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3월, 멕시코국립자치대학 법과대학의 시위와 10월의 미초아칸 니콜라이타 대학의 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68년 5월부터도 멕시코의 곳곳에서 시위는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68년 5월 31일 트로츠키주의 노동자 정당이 집회를 열었고, 7월 24일에는 프랑스 낭떼르에서 온 두 명의 대학생이 프랑스 68운동에 대한 과정을 멕시코국립대학 경제학부에서 강연하기도 하였으며, 9월 18일에는 멕시코국립대학에서 경찰과 학생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는 멕시코 68혁명이 오로지 멕시코시티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 68혁명 운동은 멕시코시티 이외에서도 진행되었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케레타로(Querétaro)에서는 1968년 6월 24일, 지역신문인 '디아리오 데 케레타로(Diario de Querétaro)'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지역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고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 트라텔롤코 학살은 이후 멕시코 개혁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저항은 결국 트라텔롤코와 같은 결론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항세력들은 좀 더 강력한 투쟁방법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좌파 극단적 모험 투쟁이 시작되었다. 트라텔롤코 학살에 영향을 받은 1970년대 멕시코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은 LC23S(La Liga Comunista 23 de Septiembre)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LC23S는 1973년 3월 1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이그나시오 아르루로 살라스 오브레곤(Ignacio Arturo Salas Obregón, 일명 Oseas)에 의해 만들어진 비밀 무장 결사조직으로서, 당시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프롤레타리아 혁명 조직의 결집과 무장혁명 군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LC23S는 1973년부터 1983년까지 멕시코 22개 주에 광범위한 조직을 건설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점차 조직의 활동이 요인 납치를 통한 자금 획득 등에 국한되면서 동력이 떨어졌고, 결국 1983년 조직 내부의 정치방향성 문제로 인한 내분에 의해 궤멸되고 만다. LC23S 사례는 멕시코 68혁명 이후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추구했던 좌파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주장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멕시코 정부는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일명 '더러운 전쟁(la guerra sucia)'을 진행하였다.

멕시코 좌파 및 개혁세력들은 트라텔롤코 학살을 막지 못하였으며, 이 학살을 겪은 이후 극단적 모험주의 좌파 투쟁으로 모습을 변모하였다. 하지만 도시지역 게릴라 운동은 조직력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촌을 기반으로 한 무장투쟁에 매진하였으며 그 중심지역이 바로 케레로였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멕시코의 급진적 좌파운동은 거의 궤멸되었고, 이후 견제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국가권력과 범죄조직은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아요치나파의 비극은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하며, 멕시코는 국가폭력과 일반범죄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5. 케레로와 '전술화된 국가폭력'

1960년대까지 케레로는 멕시코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의 하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가난하다. 약 60%의 인구가 문맹이었고, 학생과 교사의 비율 역시 학생 1천명 당 교사 수는 9.3명에 지나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케레로는 실종(desapación)의 고장이었으며, 이것은 정치적 기술(tecnología

política)의 일종이었다. ‘실종’이라는 테크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투쟁가들의 존재를 지워버린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게레로 주에서 행해진 ‘더러운 전쟁’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텔라라냐 계획(plan telaraña)이다. 이 계획은 1960-70년대 멕시코 게레로 주에서 행해진 반혁명 전술로서, 이 계획에 의거하여 게릴라 활동과 공산주의를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상당수 민간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실종된 계기를 만들었다. 멕시코는 1958년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Adolfo López Mateos)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재임기간 1964-1970년),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1970-1976)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더러운 전쟁을 지속해왔으며, 텔라라냐 계획 즈음부터 국방부의 기획에 의한 반혁명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1970년 12월 1일,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에체베리아 알바레스(Luis Echeverría Álvarez)는 에르메네힐도 쿠엔카 디아스(Hermenegildo Cuenca Díaz)를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당시 국방장관의 주요 임무는 좌파 게릴라와 정적들을 제거하는 ‘더러운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게레로에서 행해진 ‘더러운 전쟁’ 당시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적 조사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바 없으며, 다만 2014년 게레로 주가 중심이 되어 진실위원회(Comisión de la Verdad del Estado de Guerrero)를 구성한 후 조사한바 있다.

아요치나파 43명 실종사건은 전대미문의 실종사건으로서, 멕시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폭력의 근원적 특징에 기인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사건은 1968년 툴라텔룰코 학살 이후 변화했던 좌파 모험 투쟁노선의 한계와 실패,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폭력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멕시코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멕시코의 국가폭력은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부관리와 관료주의, 그리고 마약조직과 같은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 아요치나파 사건은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나 가해자들이 체포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멕시코의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